

6·4 지방선거 확대경

여야 '프레임 전쟁' 가열

지방정부 심판 vs 집권세력 견제 vs 새정치

여, 지자체장 실적 평가야,朴정부 독선 심판론 신당, 주민 삶의 질 향상

풀이된다. 우선 새누리당은 연일 지방정부 심판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황우여 대표는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방선거는 그동안 지방정부 4년간을 총결산하고 그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하는 선거"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정부의 공약과 실적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고 이치에도 안 맞는다"며 "중앙 정치의 당리당락을 지방으로 확대하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정쟁 유발로 국민만 피곤해진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새누리당의 전략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상당수가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에 대한 견제론·심판론을 선거전략으로 제시했다. 노웅래 사무총장은 이날 "이번 지방선거는 불통·독선 정권에 대한 견제론으로 가야 한다"면서 "큰 틀에서 정권견제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선거의 목표와 화두는 바로 오만한 권력에 대한 강력한 견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안 의원 측은 '새 정치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차별화를 시도했다. 새정치연합의 김성식 창당실무준비단장은 "새정치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정도로 선거 캐치프레이즈를 정할 것"이라며 '심판', '견제', '평가' 등의 단어를 배제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심판론은 기존 양구도의 고정관념"이라며 "우리는 '맑은 정치 새정치'라고 생각하기에 맑은 정치를 대신하는 새정치를 강조하고, 주민의 실질적 삶을 개선하는 게기가 될 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프레임 전쟁'이 가열되고 있다. 지방선거를 '집권세력 중간평가' 또는 '집권세력 견제론'으로 규정하려는 민주당에 맞서 새누리당은 '지방정부 심판론'을 주창하고 나섰다. 이에 안철수 의원 측 새정치연합은 '새정치'를 내세우며 기성정당에 도전장을 던진 형국이다. 이 같은 정당의 움직임은 지방선거의 성격 규정을 통해 선거구도를 자당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한승원 칼럼

창공을 훨훨 날아다니는 자유의 새가 새장 안의 새에게 찾아가 빈정거렸다. "창공과 질푸른 숲 속에서 노니는 내 자유자재의 멋들어진 삶을, 답답하게 갇혀 사는 네가 아느냐?" 여서 도망쳐 나오너라." 새장 안의 새가 대답했다. "늘 허거져 있는 너는 날알을 얻으려고 이리저리 헤매야 하고, 매에게 잡혀 먹힐까 두려워 조마조마해야 하지 않느냐? 나는 그런 걱정 없이 주인이 제때에 맞추어 주는 맛있는 날알과 물을 마시고 편안히 쉬면서 주인을 위해 노래를 불러주고 산다."

리 사육하는 비닐하우스 시설이 있다. 나는 그 시설을 멀리 피해 산책을 한다. 비닐하우스 시설에서는 아늑한 곳에서 들려오는 해조음 같은 오리들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물론 구중구중 배설물 냄새도 난다. 저 오리들도 옛날에는 창공을 나는 새였으리라. 그런데 인간이 가두어 키우다 보니 나는 기능을 잃어버렸으리라. 나는 고통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집에서 농사짓고, 고기잡이하며 살 때 닭을 전통방식으로 기른 적이 있다. 알을 받아서 팔아 책을 사보자는 것이었다. 77마리로 불어났고 그것들이 모두 어린 닭이 되었을 때, 일주일 70여 개의 알을 장에 팔아 책을 사올 수 있었다. 닭으로 인해 하늘을 날아오르는 꿈을 꾸었다. 알로 인한 수입으로 책을 구입하여 읽고 시인, 소설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한데, 그 꿈에 젖어 살던 어느 날 아침

광산구 출마예정자, 광역의회 선거구 조정안 반발

광주 광산지역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광역의회 선거구 조정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가칭)으로 광산구청장 출마를 준비중인 유재신 전 광주시의원 등 광산지역 출마예정자들은 4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의회 의원정수는 유지한 채 예초 부구가 예상됐던 광산 제3선거구의 지역만 조정할 정개혁위의 선거구 조정안에 반대한다"며 "국회 정개혁위는 광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구는 신창·신가동과 수안동으로 분구돼 광역의원 수가 1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민주당은 신창동을 4선거구로 보내는 편수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광주 북구 측은 3만4000명에 시의원 1명인데 반해, 광산구 측은 12만명에 시의원 1명 풀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북구 같은 주민 수 15만7799명 대비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8명 등 지방의원 수가 11명이지만, 광산구 측은 22만6744명 대비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5명 등 7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의회 교육의원 4명 임시회 '보이콧'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의원 4명이 오는 5일부터 열리는 광주시의회 제223회 임시회 출석을 '보이콧'하기로 해 교육위원회 상임위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박인화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임동호·김선호·정희근 등 교육의원 4명은 4일 간담회를 열고 '교육감 교육경력

부활 및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며 한국교육위원 총회의 결의에 따라 교육 상임위, 본회의 모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기에 접수된 '광주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 등 총 4개 안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주 도심 소통길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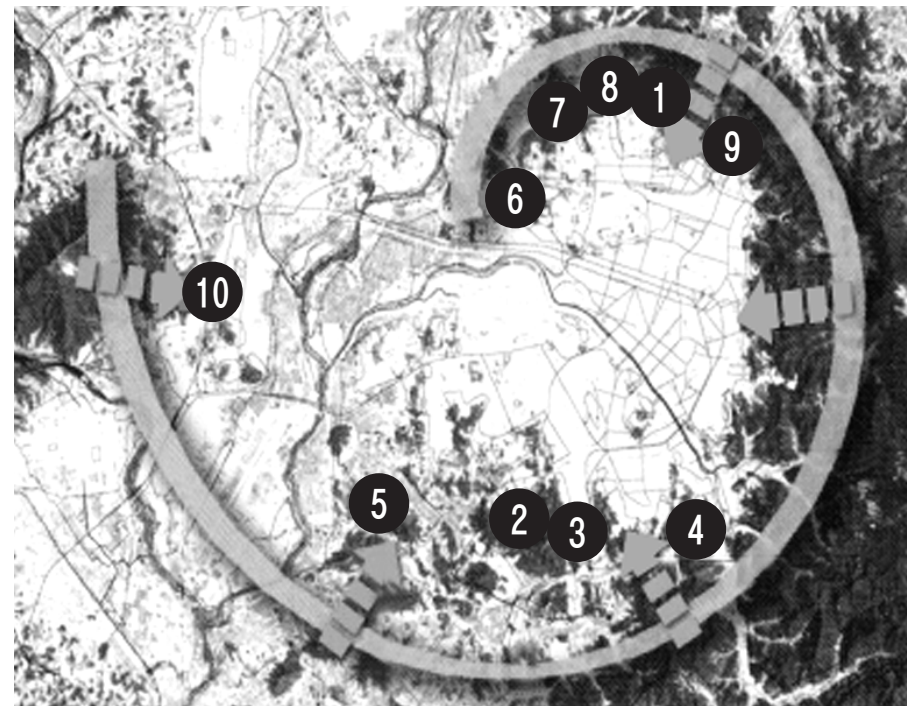


Table with 4 columns: 구분 (Division), 주요단절구간 (Main Discontinuation Section), 구분 (Division), 주요단절구간 (Main Discontinuation Section). Lists 10 routes connecting various districts like Songhak, Gwangju, and Buk-gu.

광주 도심 단절구간 소통길로 잇는다

1500억 들여 문흥JC 부근 등 10곳 연결

광주시가 도심 내 단절구간을 소통길로 다시 잇는다. 광주시는 4일 "이르면 내년부터 총 1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로 개설로 훼손 또는 절단된 녹지 10곳을 복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먼저 오는 2015년까지 185억원을 들여 호남고속도로 개설로 인해 훼손된 문흥JC 부근 녹지를 길이 125m, 폭 30m 구름다리 형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시는 총 공사비 185억원 중 15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70억원은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강운태 시장은 이날 한국도로공사 김학송 사장과 통화를 통해 이 같은 방

안을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강 시장은 이날 현장을 방문해 "호남정맥인 무등산 자락이 각종 도로 개설로 단절돼 안타깝다"면서 "우선 무등산과 가까운 문흥 JC 부근 녹지를 복원하면 무등산을 다양한 경로에서 탐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중앙공원 내 단절 구간 ▲금당산~광주대 ▲효덕동~노대동 ▲봉황산~송학산 ▲운암산~영산강 대성공원 ▲삼각동 산마루~가리재 ▲일곡동 예비군훈련장~우치공원 ▲북구 도선사~매골 ▲광산 북용산~옥녀봉 등 녹지가 훼손돼 단절된 9곳을 구름다리 형으로 복원할 방침이다.

새들의 삶과 꿈에 대하여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준다. 하늘에 깎아는/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걱이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죽지에 파묻고/ 파스한 체운을 나누어 가진다.//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람을 가식(假飾)하지 않는다.// 포수는 한 덩이 낚으로/ 그 손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몇 해 전 늦가을에 한 저수지로 가장 오리들의 군무를 보러 간 적이 있다. 수만 마리가 한꺼번에 날아올라 노을이 지기 시작한 하늘을 어지럽게 누비질했다. 그들은 날개로 바람을 일으켰다. 임권택 감독은 영화 '태백산맥' 머리부분에서 가장오리들의 군무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왜 한낮에 조용히 갈대숲이나 물결 위에서 머물러 있다가, 해저물녘에 그렇게 한꺼번에 날아 춤을 추는 것일까. 내가 보기로 그것은 춤이 아니고 시위였다. 아니 그들의 개체 하나하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하고 축하하는 것이었다. 바다로 나가는 나의 산책길 옆에 오

일찍이 닭장엘 들어가 보니 뻐 밑에 세 마리가 죽어 있었다. 이후 방역을 한다고 했지만, 일주일 만에 모두 죽었다. 웅크리고 조는 것들은 하루 안에 다 죽었다. 나는 그것들을 모두 밭에 구덩이를 깊이 파고 묻었다. 미처 다 죽지 않고 조는 것들도 파묻었다. 그때의 절망과 슬픔은 지금도 내 가슴에 푸른 멍 자국으로 남아 있다. 이제 생각하니, 나의 삶과 꿈만 생각했을 뿐 닭들의 삶과 꿈을 생각지 않은 것이 실패의 이유인 듯싶다. 닭도 하늘을 나는 새였으므로, 자연의 순리에 알맞게 키워야 하는데, 나는 내 욕심만 채우기 위해 그들을 비위생적으로 한 곳에 집약적으로 키운 것이었다. 지금 고병원성 조류 독감이 가장오리와 기러기와 오리 사육농가와 닭 사육농가로 번져 매를 살 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바이츠로 280만 마리가 넘었다고 하니 안타깝고 슬프다. 새에게서 손수를 물리적으로 과다하게 얻으려는 인간의 집약 사육의 원죄일까, 자연의 벌일까, 이 세상에는 그에 따른 간절한 기도도 먹이지는 않는다. 가급적 사육농민의 절망과 슬픔을 어떻게 위안해주어야 할까. <소설가>

Advertisement for the book 'The Last Days of the Sea' (해역의 마지막) by Nam Sa-ko. The ad features the book cover on the left and promotional text on the right. The text highlights the book's focus on the lives of sea turtles and the author's personal connection to the subject. It mentions that the book is a collection of essays and is available in paperback for 25,000 KRW. The ad also includes a quote from the author about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the lives of sea turtles and the impact of human activities on their survival.